

송승현, 역시 한류 스타!

D 후지 TV '軍 제대' 특집 다큐 제작

일본 후지TV가 11월15일 제대하는 한류 스타 송승현에 관한 특집방송을 준비 중이다.

송승현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19일 "후지TV가 '어서 돌아오세요, 환영합니다, 송승현(가제)'이라는 제목의 2시간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송은 12월 중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될 이 프로그램은 송승현의 그동안 활동 모습과 함께 11월18~19일 열리는 '송승현 아시아 팬미팅 2006'의 내용 등을 담는다.



김호진-김지호 부부 '사랑의 사진전' 모델

대한사회복지회 주최

'천사들의 편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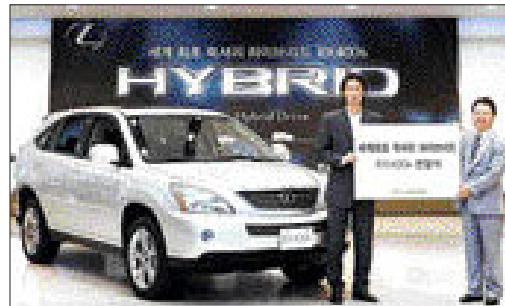
탤런트 김호진-김지호 부부와 김혜수, 에피하이, SG 위너비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천사들의 편지' 행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대한사회복지회가 2003년부터 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세현 작가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선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조세현 작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연예인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같이 사진을 찍는다.



도요타, 흥명보 코치에 렉서스 하이브리드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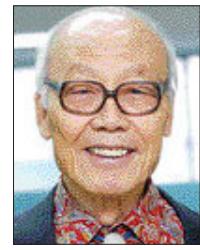
한국도요타자동차는 흥명보 축구구가대표팀 코치에게 세계 최초의 고급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팔리티 차량(SUV)인 렉서스 RX400h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흥명보 코치는 지난 18일 개최된 전달식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 드라이버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되새기겠다"고 말했고, 한국도요타자동차 치기라 태이조 사장은 "한국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리더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상순 전남대 명예교수
21일 학술대회 참석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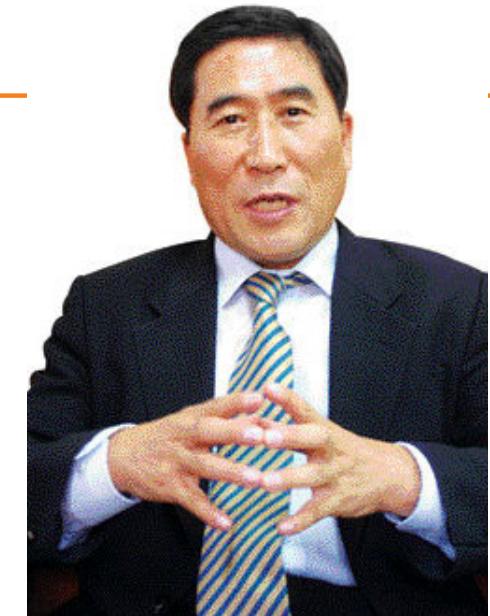
신상순(85·광주국제교류센터 상임교수) 전남대 명예교수가 21일 조선대 경상대학에서 열리는 2006년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 발표대회에 참석, 강연한다.



신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 언어학자의 백일몽-한글을 통한 세계 문맹 퇴치의 길라잡이'를 주제로 강연한다.

■ 26~27일 '사랑의 바자회' 여는 광주 월광교회 김 유수 목사

"사랑 나눌수록 희망은 무럭무럭"



올해로 16년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어 화제다. 광주 화정동 월광교회가 바로 그곳으로, 그 중심엔 김유수 목사가 있다.

지난 91년 처음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연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금년에도 오는 26~27일 이를간 바자회를 갖는다.

16년째 '나눔의 정신' 실천

광주 화정동 월광교회 김유수(60) 목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16번째를 맞이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바자회에서는 수익금 900만원과 현미찹쌀(1kg) 200포대를 상무2동사무소에 기증했다. 동사무소는 이 물품을 만성질

환자, 실직자 자녀 등 모두 167세대에 전달했다.

"교회의 수익금을 남기기 보다는 만남과 나눔의 한마당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할 뿐이지요."

바자회에는 교인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밀반찬 등 정성어린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사랑의 옷 나누기, 구두 수선 등의 베풂 시장도 열린다. 김 목사의 말처럼 이제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자회는 국악단과 가수들을 초청해 공연을 하는 등 올해부터 문화 축제도 겸할 예정이다.

김 목사의 '이웃 사랑'은 바자회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4년부터는 자신의 소유물 1%를 기증하는 '월드뱅크'를 설립해 상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돋고 있다. 3평 낮지한 컨테이너

건물이지만 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큰 장소다. 이곳에 모인 쌀, 라면, 의류, 치약, 칫솔 등을 모아 매주 수요일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한다.

'월드뱅크'는 지난 3년 동안 100여 명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1년에 1~2차례 비정기적으로 '행복 나눔 축제'를 열어 마을청소와 경로당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노인 200여 명과 함께하는 경로 대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있다.

열린 교회 지향…문화축제 겸해

가까운 교회,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김 목사는 11년 전 월산5동에서 현재의 화정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의 물타리를 만들지 않았다. 교회는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주민

들이 항상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1만 5천여원의 책이 있는 교회 내 도서관과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한 '행복한 고민'에 바쁘다는 김 목사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섬 주민과 동고동락 "경찰관 이장님"



목포署 임자파출소 김병래 경사



그는 무엇보다 섬 주민들과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것 이 섬 근무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20년 이상을 섬에서만 근무하면서 혼자 주민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포경찰서 임자파출소 재원도 낙도소초에 근무하는 김병래(52) 경사.

김 경사는 1978년 경찰에 발을 들인 뒤 함평경찰서에서 근무를 마치고 1982년 목포경찰서 도조 낙도에서 근무한 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하의도, 매화도, 일자도 등 24년동안 신안지역 7곳의 섬민을 돌며 일하고 있다.

남들이 싫어하는 섬 근무를 하면서 김 경사는 도심의 각박함에서 벗어난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고 섬 사람들의 정을 느끼며 어느 새 섬 근무 전문(?) 경찰이 됐다.

"주민이 100여명 밖에 안되니 치안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느 곳에서보다 많은 대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농번기에는 대부분 60~70대인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고기잡이 배 선주들과 선원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경찰관이라기 보다는 마을 이장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횃나지잡이' 이민 구조

김팔오씨 등 3명 표창장

목포 해경은 19일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어법(漁法) '횃나지' 잡이 중 소중한 생명을 구한 어민(본보 18일 자 사회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사고 없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어민들인 태촌리 이장 김팔오(59·사진 가운데)씨와 나광복(55·오른쪽), 김윤배(32) 씨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제 61주년 경찰의 날' 포상자 명단

◇홍조근정훈장

▲김상환(경남경찰청장) ▲박기륜

◇옥조근정훈장

(경찰청 외사국장) ▲윤재옥(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유근섭(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이종기(충남경찰청 차장)

◇근정포장

▲이수정(전남청 경감)

◇대통령표창

▲노병현(전남청 총경) ▲박석일

(전남청 경감) ▲김태금(전남청 경정) ▲민성태(전남청 경정) ▲최철웅(전남청 경감) ▲홍경식(전남청 경감)

▲이상재(전남청 경감) ▲유승한(전남청 경위) ▲조무성(전남청 경위)

◇국무총리표창

▲황의흔(전남청 경감) ▲전태호

(전남청 경감) ▲홍여표(전남청 경감)

▲김영택(전남청 경감) ▲박혁현(전남청 경감) ▲이용환(서울경찰청 경감)

▲장종찬(서울경찰청 경감) ▲이재술(경기경 경감) ▲윤주홍(전남청 경감) ▲류상열(경북경 경감)

광주향교, 공자탄신일 '효부상' 15명 표창



18일 광주향교에서 열린 공자탄신일(2557년) 기념일 효행표창식에서 김준순(아래 맨 왼쪽) 할머니 등 15명이 효부상을 수상했다.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동강대, 주민과 함께하는 시력검사



광주 동강대학(학장 이주석)은 19일 대학 축제인 '범두글 대동한마당' 때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시력검사 등 웰빙 프로그램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장
'올해의 CEO 대상' 수상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가 주는 '올해의 CEO(최고경영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 사장은 취임후 조직 혁신활동과 능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사장은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 서울대를 거쳐 농림부 차관을 지냈다.

걸스카우트 사무총장에
박영신 기획연구부장

박영신(48)씨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18일 종로 구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열린 2006년 제2회 전국이사회에서 박영신 기획연구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인준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청소년단체협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민병옥씨 4남 양병창군 정병철(광주백사운송사업조합 이사장)씨 장녀 지윤양=21일(토) 오전 11시 30분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강인식씨 장남 응혁군 김천주(광주자동차경찰서장)씨 장녀 정선양=21일(토) 낮 12시30분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영동(해남군 문화예술회관장)씨 장남 경남(개인유동업)군 최철일씨 3녀 경아(SK텔레콤 광주지점)양=21일(토) 낮 12시10분 해남베르사유웨딩홀 1층.

▲김신일씨 장남 정완(행정자치부 사무관)군 남영광(전 담당군청)씨 장녀 지숙(의사)양=21일(토) 낮 12시30분 상록회관 장미홀.

▲제 16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26~27일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월광교회 주차장.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사용.

▲제 17회 조대부고 총동문 친선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제 8회 조대부고인의 밤=21일(토) 오후 6시30분 제일오피스텔 스카이웨딩홀 19층 무궁화홀, 234-5666

▲제 5회 서강고 총동문기족 체육대회=22일(일) 오전 10시 모교 대운동장, 225-2914, 018-392-1024

▲전남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 신창동 모교운동장, 521-5327

▲창평고 졸업 20주년 기념축제=22일(일) 오전 9시 모교 만덕관, 016-604-9922

▲북성중 제 22회 동창회(회장 박희원) 월례회=23일(월) 오후 7시 동현회관, 515-8808

▲재광 득량남초교 동문회 창립총회=25일(수) 오후 6시30분 회사장, 226-9282, 011-623-9696

▲북성중 제 26회 동창회(회장 김수완) 월례회=26일(목) 오후 7시 선일농원, 953-9008

▲제 5회 서강고 총동문회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 224-1461

▲제 5회 서강고 총동문기족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 224-1461